



3면

文 대통령 "5·18 국가폭력 진상 반드시 밝혀야... 왜곡·편향 없어야"

전주매일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음 4월 27일) 제253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동학정신 헌법전문에 포함해야”

송하진 전북지사 제안, 對 국회 공동성명서 채택 시도지사협, 지방분권 관련 법안 신속 통과 요청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송하진 도지사가 제안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토록 하자는 안을 채택하고 공동성명서에 싣기로 하면서 향후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 시 동학농민혁명 정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시도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고, 공모사업 진행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차별받지 않도록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개정시 지방분권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송하진 지사 등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진상황 및 향후과제, 2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계획, 2단계 재정분권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양성 방안 등 6건의 보고안건을 논의하고 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송하진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 시 동학농민혁명 이념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성명서에 “동학농민혁명”을 제안했고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를 채택했다. 송 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은 125년 만인 지난해 국가기념일(5.11.)로 지정됐고 민주화운동의 뿌리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며 “민중이 중심이 돼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혁명이자 최초의 근대화 운동으로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 시위혁명의 모태로서 중요한 사회적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도 송하진 지사

는 모든 시도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송 지사는 “1단계 재정분권 결과 재정여건에 따라 시도간 유불리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균특예산 보전 3년 일몰뒤에는 더 큰 문제가 예상된다”면서 “일몰연장 건의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가 1단계 재정분권의 평가를 통해 모든 시도의 입장을 정리해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재정분권에서 모든 시도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사업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될 수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인프라가 없는 지역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송하진 지사 등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회 5.18 기념식에 참석해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5월 광주의 정신을 기렸다. /김진성 기자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4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국시도지사들이 덕분에 촬영을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쪽 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윤태정 대전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순.

고3 예정대로 내일 등교 도내 학생수 1만7874명

교육당국 “수업 무기한 연기보다 철저한 방역”

오는 20일 전북 지역 1만7874명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등교 개학한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브리핑을 통해 5월 20일 고3 수험생들과 60인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한 등교개학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등교개학하는 도내 60인 이하 병설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교수는 초등학교 170개교, 중학교 80개교, 병설유치원 144개원, 특수학교 10개교(고3 과정) 등이다.

또한 이날 등교개학하는 전북 지역 학생 수를 살펴보면 병설유치원 97명, 초등학교 5343명, 중학교 1787명, 특수학교 114명(고3 과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교육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의 불확실성과 가을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무기한 연기하기 보다는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면서 등교수업을 개시해야 한

다”고 밝혔다.

특히 “고3은 사회에 진출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마지막 단계다”며 “지난 11년간의 준비가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무위로 돌아가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당국은 각 시도교육청에 학년별 격주제나 격일제 등교 수업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오전·오후반 운영 등 수업방식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이태원발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으로 인해 감염위험 차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북도에서 일방통행 하도록 지시하겠다”외에 휴식 시간이나 급식시간, 등·하교 시간 등 학교 방역에 대한 어려운 일들이 많다.

한편, 5월 27일 사립유치원 및 모든 초·중·고교에서 등교개학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 中企 품질혁신 공정개선 지원

참여기업 5개사 최종 선정

전북도와 한국표준협회 전북지역본부는 ‘창의적 중소기업 품질혁신 공정개선 사업’의 참여기업 5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중소기업 품질혁신 공정개선’은 기업이 자체 구성한 분임조의 혁신활동과 전문가 지도를 병행하여 기업의 겪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소규모 공정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6일부터 24일까지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11개사가 신청, 현장실사를 거쳐 5개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참여기업은 기업별 2500만원, 총 1억 25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며,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참여기업 지원과 더불어

어 전년도 참여기업이 구축한 공정개선 성과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위해 전문가 현장지도도 추가로 실시하여 효과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중소제조기업의 꾸준한 혁신활동과 품질개선 활동은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품질혁신 공정개선 참여기업이 사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道 ‘이태원 발 코로나’ 699명 검사 완료... 20번 확진자 외 전원 음성

전북도 방역당국이 이태원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문자 등 699명 전원에 대한 감염 검사 결과 20번 확진자 외 나머지 688명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보된 7명과 자진신고 692명 등 모두 699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그 결과 이날 5일 이태원 주점과 클럽 등을 다녀온 후 12일 새벽 코로나

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A씨(33)를 제외한 688명은 음성이었다. 전북지역에서 확진자로 판명된 20명 중 해외입국자가 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대구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6명, 중국유한지역방문 1명, 확진자접촉 1

명, 이태원클럽 1명, 기타 1명 등이다. 현재 전북대병원 등 전북지역 내 입원환자는 7명이다.

한편 전북도 방역당국은 재양성자 108명에 대한 검사 결과 전연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정부의 방침에 따라 19일 0시를 기해 ‘재양성’ 표현을 PCR 검사 반응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